

결핵퇴치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전순희 / 인천직할시 남구보건소 결핵관리실



사례발표 당시의 전순희씨.

이글은 지난 4월 2일 전국결핵관리평가 회의 때 현지 결핵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순희 씨의 뛰어난 결핵퇴치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인천직할시 남구보건소 결핵실에 근무하는 전순희 입니다.

오늘 결핵퇴치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핵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공중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서 간호학 실습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결핵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핵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차츰 결핵환자를 대하다 보니 호흡부전이나 토혈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는 결핵의 조기 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계도와 결핵퇴치를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후 졸업과 동시에 충남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게 되어 3교대 야간근무를 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50명의 일반환자만을 상대하다보니 결핵에 대한 중요성을 까마득히 잊고 있

이것을 계기로 결핵에 대한 보건소의 인식이 달라져 많은 주민과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있으나 4년전인 지난 '88년도에 직장을 인 천으로 옮겨 남구보건소 결핵실에 발령 받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국립결핵요 양원 실습당시의 환자들이었습니다.

병원과는 달리 보건소의 업무는 환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결핵관 리라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지난 날에 못다한 결핵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 을 다짐했습니다.

45만명이 웃도는 인구에 22개 관할 동 사무소와 많은 학교를 결핵관리역사도 없이 두명의 결핵관리요원만으로 감당하 기엔 힘이 벅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 후 늦게까지 조금도 쉴사이 없이 바쁜 나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때는 10명이 상의 신규환자를 등록하다보면 목이 아 파 저녁에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 도였고 하루 8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피 피디(PPD) 판독과 비시지를 점종하는 날엔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만사가 귀찮 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살난 딸아이가 “엄마 동화책 좀 읽 어줘”하고 졸라대고 남편은 남편대로 “남 들말에 의하면 보건소는 시간이 많고 편 하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바빠, 그렇게 바쁘고 힘들면 애나 잘키우고 집안일이 나 잘해” 하고 화를 낼때는 저로서도 처 음의 각오와는 달리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었습니다.

일에 지쳐있는 저를 보고 안타까웠는 지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근무하는 남편 이 직장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자상하지 못한 제 남편이 그 날은 왠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 나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학 교애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난 급훈을 다른반과 다르게 ‘생 각하며 행동하자’라고 정했어”라는 말에 저는 대뜸 왜 남과 똑같이 무난하게 ‘근 면·성실’과 같이 정하지 않았느냐고 했 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더군요.

“밤늦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재로 인해 연기로 가득찬 교실은 앞뒤를 분간 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 왕좌왕하며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벽 에 머리를 부딪쳐 아비규환 상태가 되어 교실을 빠져 나갈수 없는 수라장이 되었 는데 어느 한 학생은 다른학생과 달리 곰 곰히 생각하다가 침착하게 열쇠를 찾아 비상문을 열고 아무런 상처없이 빠져 나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 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게도 분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있을 것 이다. 적은 인원으로도 과다한 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찾기위하여 일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성있게 추 진해 나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학교예방접종은 양호선생님에게 일임 하고 결핵환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함 께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결핵의 완치에 힘쓰도록 당부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비시지에 대하여 제 나 림대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지 침서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

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람은 그 학교 양호교사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서는 이에 따르는 문제를 들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전의 관행대로 해라, 비시지는 부작용이 많다더라, 왜 우리가 해야하느냐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업무는 보건소 일이다라고 하며 어떤 교장선생님은 상부기관에 직접 보고하여 교육위원회에서 항의 전화도 걸려오곤 했습니다.

윗분들은 공연히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전례대로 보건소에서 비시지를 접종해 줄 것을 종용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시 한 두 군데 전례대로 실시하다보니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결핵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간 5,000여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10대 사망원인이 되는 결핵을 퇴치하는데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에서 몇개월의 실습만으로도 예방접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3-4년간 공부한 양호선생님들이 부작용을 염려하여 학생들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미루고 학생건강관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지역사회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핵을 퇴치하는 일은 보건소만의 일이 아닌 우리 의료인 모두의 일이라며 각 학교 양호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되어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고 저의 보건소는 결핵의 홍보와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결국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결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효과를 보게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결핵에 대한 보건소의 인식이 달라져 많은 주민과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시한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사람이 달걀 하나를 똑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해도 세울수 없었는데 콜럼버스가 달걀의 아래부분을 깨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런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누구도 발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각지에서 결핵퇴치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계신 여러분 손바닥 하나만으로는 소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결핵에 관한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결핵환자 실태는 결핵관리요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핵퇴치에 너와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료인과 국민모두가 새롭게 인식하고 좀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용기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면 우리나라의 결핵문제는 점차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많은 선배님과 선생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